2019 년 12 월 1 일 "(복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요 1:1-5; 9-13)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성탄절 이전 4 번의 주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좋은, 기쁜 소식)이 되시는 지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1] 무엇이 좋은 소식(복음)의 핵심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영광을 돌리게 된 것' '기쁨을 누림' '용서하게 됨' '매였던 것으로부터 풀려남' 같이 답한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나의 삶에 맺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갈 1:12 참고).

내 삶의 이런 축복은 '새 생명 얻어서' '거듭나서' '자유함으로' '하나되어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의 실체를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좋은 소식의 핵심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 입니다.

신약에서 좋은 소식에는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 나타난 것**이라는 원리를 간파해야 합니다. '죄를 사하셨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새 삶을 열어 주셨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 이것은 모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의 필수요소 입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임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요 20:28**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도마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는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구주)는 사람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 시라고 말합니다(딤전 2:5).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여전히 감추어져 주님의 뜻이 땅 위에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 신약의 증거입니다(롬 16:25 참고).

[2]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 오셨는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좋은 소식의 전모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3 절. 태초에 말씀이 계심, 그 말씀은 하나님(성부)과 함께 계심. 말씀은 하나님(성자).
9 절. 참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12 절.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 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줄이면, 말씀이신 하나님(성자)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 10:10, 20:31 참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어 하늘의 생명을 받고 누리는 새로운 존재(새 사람)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따라 하늘의 생명을 얻습니까?

(1) 예수님의 성품, 가치관, 방식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본을 따름으로써.

(2) 순종하여 죽으신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자각하고 나의 옛 삶을 십자가에 맡길 때.

(3)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님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도움을 받음으로써.

(4) 성령 오셔서 주님의 몸으로 탄생시키신 교회에서 공동체적 삶을 배움으로써.

(5) 악과 고난의 소용돌이를 통과하는 가운데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배움으로써.

(6)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생명을 소망함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위의 길들이** 내 삶과 공동체와 세상에 열렸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3]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 나의 쪽에 요구되는 한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이 빛 되시려면 나는 어둠이어야 합니다. 나 또한 작은 빛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나를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처럼 마음이 무질서하고 사욕이 많으며 자기 중심적인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태어나면서 이런 어둠을 짓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커지는 어둠을 속으로 감추고 겉으로는 더욱 자기 의의 색깔을 입힙니다. 그러나 나의 어둠이 폭로된다면 나에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이 절박해질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자신의 어둠을 폭로하는 회개가 요구됩니다(행 2, 4 장 베드로 설교 참조).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빛 되신 주님(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을 말씀해 보십시요.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 누리는 영적 선물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2. 예수님의 빛을 내게 비추실 때, 그분의 빛이 빛 되시도록 하기 위해 나는 어떤 영역에서 씨름을 해야 할까요? 내가 했던(또는 하고 있는) 영적 씨름이 있다면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예 - 자기중심성과의 씨름)